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주일에배 설교
음성서비스

Apple Podcasts
팟캐스트

Spotify
스포티파이

팟빵

오디오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종료

7월 12일(금) 은혜로운 성찬식으로 풍성한 기쁨 나눠

새벽의 고요함을 뚫고 간절한 마음으로 40일간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제36회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롭게 종료되었다. 광림교회는 7월 12일(금) 호렙산 기도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했다.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떡을 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삼상 12:16)이란 주제로 6월 3일~7월 12일까지 매일 새벽 열린 호렙산 기도회에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다.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의 문제 앞에서 성도들은 눈물의 기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주여! 주여! 주여!” 힘찬 중보기도의 합성과 찬양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위로와 소망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했다.

제36회 호렙산 기도회는 해외 광림미션센터를 비롯해 69개국에서 기도회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영상으로도 함께해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국내외 세계 각처에 전달되었다. 성도들은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자녀와 일터, 건강의 회복 등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특별히 예배 후에 매일 국내외 선교지, 다음세대 등의 공동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응답의 열매와 간증이 이어졌다.



40일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며 호렙산 기도회를 인도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능력과 치유함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해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호렙산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한 박정아 성도(8교구)는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고 그 말씀으로 제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평소 느끼지 못한 가슴 벅찬 감격과 은혜의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딸, 교구 식구들과 함께 한 40일은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라고 고백했다.

매주 토요일 호렙산 기도회는 활기찬 축복의

잔치였다. 교역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 교회학교의 특별 찬양으로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학교는 7월 6일(토) 안수기도회를 열었고, 현재 여름성경학교 ‘광림광야학교: 빠른 길보단 바른 길로!’를 진행하고 있다.

청장년부는 본당 로비 소망사진관에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가정에 가족사진을 촬영해 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했다.

청년부는 호렙산에서 받은 은혜로 국내 13개 지역 교육선교와 3개국 해외단기선교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킨 성도들,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수고한 봉사자와 교역자 모두가 호렙산 기도회 승리의 주인공들이다.

소현수 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의 기쁨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고전 7:22)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어느 사회학자에 의하면 자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소극적 의미(Freedom from)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옥으로부터 자유함, 돈으로부터 자유함,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입니다. 둘째로 적극적인 자유(Freedom for)로 '무엇을 향한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자유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으로 진리의 빛을 보이셨고, 우리는 빛 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자유한 만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

오늘날은 자유의 개념이 돈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최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로 들어서면서 돈에 대한 가치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합니까?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으로, 당시 노예가 되는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전쟁에 패하면 승전국에 끌려가 노예가 됩니다. 번성했던 로마제국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똑똑하고 유망한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다 사용했습니다. 둘째로,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노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반역할 때 노예가 됩니다. 자기 자신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노예제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22-23절)

바울의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고린도전서 7:20~24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	하라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	--	--

가를 통해서 우리는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24절).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사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여 자유함을 얻

는 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무디(D.L. Moody)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쭉한 겁 안에 더러운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물을 넣는 것입니다. 겁 안에 물을 넣게 되면 나쁜 공기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채우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깨져버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의 욕심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이 없어지진 않지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쉼만한 물가가 되시고 피곤한 육체와 정신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

바울은 본문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자유하라고 권합니다.

자유는 제도나 신분,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문 17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대로” 우리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에는 연한이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날에 대한 감사보다는 현재 삶의 불만과 불평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자유는 망각하고, 나 자신의 이익과 행복에만 모든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자유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물음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불안해하며 근심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더하여 질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감사 조찬예배

7월 12일(금), 오전 6시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열려



광림교회 성도들의 영적 호흡인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2일(금) 성찬식과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은혜 가운데 종료되었다.

제36회 호렙산 기도회는 40일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며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성도들은 호렙산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시간에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

호렙산 기도회 종료 직후 장로회(회장 안경섭

장로)는 사회봉사관에서 장로 부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조찬예배를 드렸다. 40일간 기도회를 인도하며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한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성도들을 대신해 감사의 꽃다발을 전했다.

안경섭 장로의 사회와 유선례 장로의 기도로 진행된 감사 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호렙산 기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킨 장로들께 감사를 전하며 담후 1:15~18 말씀으로 “광림교회 장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진 장로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도왔던 오네시모처럼 다른 사람을 소생케 하고, 세워주며, 한결같이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하나

님께 쓰임 받으며 복음의 역사를 써가는 장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라며 축복했다.

장로회를 대표해 안경섭 장로는 “호렙산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열방을 위해, 선교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드린 기도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0일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호렙산 기도회에서 받은 큰 은혜로 겸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장로회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상희 기자

포토 뉴스



호렙산 기도회 간증문
본당 계단에 성도들의 호렙산 간증문이 게시되었다.



2024 하반기 속회공과
빛의 숲 서점에서 하반기 속회공과책을 구입할 수 있다.



호렙산 기도회 기념 선물
호렙산 기도회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설교 노트를 증정했다.



2024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7월 7일 ~ 28일까지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7/12 호렙산 기도회 종료

성찬식

7/14 임시구역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24년 1차 세례예식〉 7월 7일 주일, 김정석 담임목사 집례로 49명 세례, 34명 입교

세례 →	1교구 김현서	4교구 김창수	4교구 정유경	4교구 최영락	6교구 서창하	7교구 김순임	8교구 김유상	11교구 김소영
	11교구 김소연	12교구 김경정	12교구 김현석	13교구 김미성	14교구 김용수	16교구 장선미	18교구 이재운	18교구 박준호
	18교구 박선영	19교구 김미정	19교구 송은주	21교구 강민석	21교구 이현아	21교구 안아영	23교구 김훈식	23교구 문영숙
	23교구 천병걸	25교구 유민정	25교구 오경민	25교구 김혜리	28교구 박애리	30교구 이성민	30교구 김운섭	30교구 신승현
	51교구 박명례	51교구 김동철	52교구 지계화	52교구 안은숙	52교구 송지민	52교구 송재영	71교구 안미진	88교구 서원영
	88교구 박재영	88교구 이주현	88교구 이강호	88교구 김준환	88교구 이은서	88교구 김채은	중등부 신아린	

입교 →	3교구 한영준	4교구 권선경	8교구 박예람	22교구 손예영	23교구 윤소은	23교구 김유나	24교구 임한빈	25교구 조한나
	25교구 신동국	27교구 양민준	51교구 정영선	52교구 이윤구	52교구 이찬구	52교구 박상운	53교구 이예의	54교구 김소현
	75교구 박예은	88교구 고희정	88교구 권오준	88교구 도현주	88교구 류창선	88교구 박지혜	88교구 박하루	88교구 안민호
	88교구 안휘윤	88교구 유하은	88교구 이혜연	88교구 임성균	88교구 장예람	88교구 최소원	88교구 황미진	고등부 이한설
	고등부 우유한	고등부 이대현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36회 호렙산 기도회를 드리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큰 기적입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하루만 해보겠다 했는데,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항상 피곤에 지쳐있었고, 잠이 부족했던 지였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면 일어나게 되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호렙산 기도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버스 일행 중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만나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광림교회에 오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호렙산 첫날, 권사님들을 따라 3층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른 새벽 많은 분들이 계신 모습에 깜짝 놀랐고, 찬양

과 기도 소리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분도 피곤해 하시거나 조는 분들도 없고,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마치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듯, 꽃들이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아멘, 아멘 화답하시며 주여 주여 하시는데, 광림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잘 만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사랑 많으신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새가족 교육 장로님과 많은 권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서 외롭지 않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서 다 보내주신 듯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난주 세례도 받았고, 앞으로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32일차 설교 말씀 중에서 "회복은 실패한 과거를 떨치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광림교회에 오기 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성경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호렙산을 오를 때마다 너무나 새로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시 19:10)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제 삶을 돌아보시고 지키신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돕고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아직 광림교회에 온 지 불과 석 달 밖에 안된 새가족이지만, 이 마음 변치 않기를, 교회가 저를 쫓아내지? 않는 한, 광림교회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습니다.

문영숙 성도(23교구)

내 인생 첫 호렙산 기도회에 오르며

새신자 교육을 받고 주일에배만 다니던 어느 날 전도사님이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할 것을 권면했는데, '과연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선뜻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 엄마로서 해내지 못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고 호렙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첫날 자리를 가득 메운 성도님들과 어머니와 함께 온 아이들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고민했던 순간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닌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36년째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심에 나라의 평화와 평안이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동을 받았고, 개인적인 기도밖에 할 줄 몰랐던 제가 중보기도를 하며 은혜가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또한, 찬양과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사 51:1~8)란 말씀이 어떤 행하심을 보여주실지 처음인 저에게 선례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기도를 마치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슴에 손을 얹

으시며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란 위로와 "다 네게 맡기라"는 말씀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통하여 저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침을 주시며 주님을 섬기며 더욱더 겸손하라는 계획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공활히 여기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을 완전하게 해주심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가슴 깊이 남았던 말씀은 "생각의 씨앗은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의 씨앗은 습관의 열매를 맺고, 습관의 씨앗은 성품의 열매를 얻고, 성품의 열매는 운명을 결정짓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를 습관화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덕분에 새벽기도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노트에 채워가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씩 늘어가는 출석 스티커를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놀라고 완주하고 싶은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김미정 성도(19교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입시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월 조부모님 두 분께서 돌아가시기 되면서 저에게는 많이도 무서운 질문이 생겨났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며 살아도 결국에 나는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은 저를 불안하고 두렵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정말로 저를 슬프게 하고 많이도 괴롭혔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국 내가 사랑하는 존재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란걸 깨달으니 나의 노력은 나의 사랑은 나의 감정은 모두 무가치

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가치한 걸 싫어하게 되었고 절 가치있게 해주는 사람들에게서도 도망쳤습니다.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실은 다 잃어버릴 것들이라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제안으로 교회를 가겠다고 했고, 새벽기도회에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당시에 뭘 잘 몰랐지만 '살았구나!' 싶었어요. 당시 전 생명력 없이 너무도 가볍게 떨어진 갈색의 낙엽과 같았고 죽음과 상실의 그림자는 저를 뒤덮어 짓이기고 부서뜨렸습니다. 아무리 제 힘으로 벗어나려 낙엽 위에 눈물을 부어도 더 썩고 검어질 뿐이었습니다. 교회에 간 첫날 하나님께서 절 좋아해 주신다는 걸 느꼈을 때 사실 의

심했어요. 혼자서 착각인가 하고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호렙산 기도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영원을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간절히도 감사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정말 온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을 그 선하고도 완벽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이 제게 당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금물에 섞여가던 낙엽을 빗으로 비추셔서 포도나무의 어린 가지로 바꾸는 기적을 제게 행해주셨습니다.

무엇도 두렵지가 않아요. 제 미래에 대해 이토록 모르겠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일에 써주실 것이라 믿고 있기에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직 여린 가지라 많이 흔들리고 정신도 없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선 제 삶을 많이 가치 있고 사랑스럽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두려움에서 살리는 삶을 살거예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박기연 학생(27교구)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적의 하나님

5월 15일 공휴일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오후 1시 30분 즈음 119 대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계단에서 추락하여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방에 있던 저희 부부는 오후 늦게 병원에 도착했고,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온갖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 눈을 꼭 감은 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중환자실 검사를 마치고 디스크 파열로 인한 응급수술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의대 중원’ 문제로 야기된 의료계의 분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수술을 받는 것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차 가운데에 순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송 중인 차 안에서 병원이 연결되었고, 도착한 병원의 당직의가 신경외과 담당의 여서 검사도 대기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이 금식 기도 중이어서 수술 순위도 최우선으로 배정받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사고 난 상황과 다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위치에 디스크가 손상되었고 예상보다 간단한 수술과 부작용 없을 거라고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19일째 되는 날 검사 결과가 좋아서 경추 보호대도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매일매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감사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지혜 성도(1교구)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가정

24년 동안 장기근속을 하면서 늘 신앙생활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시간 조율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이 또한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앞두고 목상하는 가운데 지난 15년 전 딸아이를 통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있었음을 떠올려 봅니다.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에 속회 몇몇 식구들과 함께 새벽에 같은 시간에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제 차로 이동하며 완주하는 시기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아이가 하루는 “아빠! 아빠는 새벽기도 안 가세요? 엄마도, 속회 권사님도, 집사님도, 엄마 차도, 자동차 기름도 새벽기도 가는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어찌나 놀라웠는지

묘한 감동으로 번개를 번쩍 맞은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어린 딸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 일로 바쁘다고 말하던 아빠가 지금까지 주일성수 한 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과 은혜로 저희 가정을 지키시며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깨닫고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아멘!!

오승하 권사(6교구)

그때가 기도할 때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성경 필사가 어느덧 사무엘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경필사를 시작할 때의 마음은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씀과 같이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과 나의 성경필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처음 며칠은 필사 시작 전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창세기부터 필사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새벽마다 담임목사님을 통해 주신 은혜와 가정에 돌아와 필사를 하며 받는 은혜를 경험하니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삶의 분주함 때문에 미처 몰랐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니 호렙산 기도회도 그렇고 성경 필사도 그렇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무엘상을 필사하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검해 보아라! 점검해 보아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필사한

것들을 보니 뭔가 서로 달라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이후부터 필사지 앞뒤를 뒤바꾸어 필사를 한 것입니다. 그 때 알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했던 성경 필사를 언제부터인가 의무적으로 하루 일과처럼 했다는 것을... 호렙산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저의 실수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다시 출애굽기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큰아들 가정의 장막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이루어주셔서 오늘 원하는 아파트동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의 4월~6월 근무 평가를 통해 정직원으로의 채용 여부가 월요일 결정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길로 둘째 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종료를 앞두고 저의 작은 실수를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간증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김두례 권사(광림남교회 54교구)

약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

몇 번의 실패로 두문불출했던 아들의 걸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몸이 약하고 심장이 약해서 신체검사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험에 대한 울렁증은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필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체력이 문제였기에 필기 시험에 붙었다고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달리기,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다른 것은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약력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나 약했기에 실패했던 전력이 있어 걱정이었습니다. 약력이 42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체력검정 결과 지금껏 결과를 얻어 내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봤습니다. 한번도 보지 못한 숫자 50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면접의 일정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호렙의 중반에 그간의 실패와 설움을 한 번에 씻겨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아들이 어디로 배치되게 될지를 구하며 목사님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또 기도에 매달려봅니다. 호렙산 응답의 역사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삶에 놀랍도록 체험되시길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송성윤 집사(30교구)





2024년 호렙산에 오르다!

그 어느 해보다 올해는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 호렙산에 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며, 호렙산 기도회 시작 즈음에 이미 저는 목감기인지 알레르기인지 병원에서조차 명확하게 병명을 말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기침과 몸살로 시달림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체력이 조금이라도 회복된다면 일주일은 오르자, 첫날과 마지막 날 성찬식은 참여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아픈 몸을 이끌고 6월 3일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주일예배 성가대에도 2주일을 서지 못했으며 직장도 병가를 내야 했던 상황에서도 극심한 기침으로 밤새 앓고 있는 저를 성령님께서서는 새벽 3시 20분 알람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6월 4일에도 그 이후로도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계속 호렙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4:30~4:40 도착 매일 호렙산을 오르면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매일 새벽 호렙산에 오르고 있는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매일 눈물이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겠지만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과 큐티, 매주 성경 암송, 가끔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딸이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를 성령의 힘으로 매일 일으켜 세우시고 매일 호렙산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아버지 성령님의 힘으로 호렙산에 오르고 있다는 깨달음이 오면서 저는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렙산에 오를 때에 가지고 올라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어 모두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34일째 호렙산을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요소들이 저를 괴롭게 했음에도, 오르는 중에 그로 인해 새로 생긴 기도 제목들까지도 응답이 되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씩 치매 증세를 보이고 계시는 중에도 “매일 새벽 교회 가서 엄마 기도 하고 있어요”라는 제 말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 라고 답하시는 나의 어머니, 새벽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전하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장막 마련 기도 제목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한길로 들어와 일곱 길로 도망갔습니다. 마치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후두염으로까지 발전되어 거의 1개월 이상 저를 몸살하게 했던 질병으로 온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며 가끔씩 저를 핍박하던 동생이 십자가 선물을 받아 주었습니다.
교회로 인한 상처가 있는 아들이 엄마의 새벽기도 하는 모습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
저는 기대합니다! 호렙산에서 하산할 때 저에게 어떤 축복이 더 임할지... 무엇을 더 알게 하실지... 주님 감사합니다.

 백채운 집사(17교구)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저는 16교구 유다지파 콰이어 이어주입니다. 저는 광림교회에 다닐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께서서는 장로교회만을 섬기셨고, 심지어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에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님을 통한 광림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합창단의 단장입니다. 저는 그곳에 외부단원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성악 선생님께서는 저를 광림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함께 유다지파 콰이어도 섬기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지파에 속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달 뒤 남편도 유다지파를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노래를 좋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겨집니다. 나중 알고 보니 성악 선생님께서 저와 남편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큰 시련을 당할 때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누렸음에도 마음이 평안해지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를 핑계로 온라인 예배만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림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호렙산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에 큰 도전이 생겼습니다.
3년 동안 새벽예배도 드렸는데 40일 호렙산 기도회 완주 못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이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제 삶에 주님 밖에 없던 시절이 그림기도 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1일차를 시작하고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는 호렙산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지면 그 시간이 언제라도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빨리 떠져 새벽 3시 20분에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저만 있을 줄 알았는데 꽤 많은 성도님이 앉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욕심을 내어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저만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2시간 밖에 잠을 못자 힘들기도 하지만 유다지파의 키보드를 섬기는 자매님을 보면서,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는 남편을 보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듯합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호렙산에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제가 호렙산에 오르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은 남편은 “너는 기억력이 짧아서 내년에는 다 까먹고 또 오른다고 할 거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매년 호렙산에 오르길 기도합니다.

 이어주 성도(16교구)

중보하는 시간에 감사

갑자기 울리는 알람 소리에 아이들이 깽깽 정신이 번쩍 뜨여 일어나는 새벽입니다. 늘 제 옆에 자는 첫째와 둘째의 동태를 살피고 자고 있는 남편이 깽깽 조심스럽습니다. 옷가지를 챙겨 입고 문을 열다 둘째가 울면 끌리고 남편이 깨면 이른 새벽에 나가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나름 요계벧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현관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는 작은 내 마음이지만 현관 앞에서만큼은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 호렙에 오르는 분이 무려 세 분이나 계셔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문 너머를 보면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저에게 은혜였고 힘이었습니다.

이 세분에 대한 저만의 감사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내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봄쫄부터일까요? 내 삶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크리스천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로 지난 제 삶을 이야기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더 커져서 삶 속에 하나님의 경험을 나누는 카톡방도 지인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간증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만족이었는데 모르는 분들에게까지 저를 드러낸다는 것이 부담이고 부끄러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내 삶이 평화로울까? 작년 암울했던 제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호렙에 오르다 보니 그 이유가 가족도 아닌 친구들을 중보하는 귀한 시간이 필요했구나 봅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간 친구의 남편. 사실 이 친구와는 금전적인 문제가 꼬여 있어선지 처음 그 말을 듣고는 며칠 동안 공감이 안되는 내 마음이 이상하여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더 위로할 말도 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 오르기 시작 한지 얼마 안 되어 불현듯 그 친구가 떠오르며 가슴 깊이 아픔이 느껴지며 같이 울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심의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다시 우울증이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한동안 집 밖을 못 나가다가 회복되었던 터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 때 말씀과 찬양을 듣던 친구의 입에서 자신은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겠고, 성정은 좋은 글일 뿐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심정이었으나 그 친구의 불안함과 공포의 감정들이 느껴지며 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호렙산 3주가 지날 무렵 이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시작 전날 설거지를 하며 듣던 찬양 속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갑자기 너무 큰 존재로 느껴졌는데, 너무 놀랍게도 둘째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첫 주 예수로 시작하여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무엇을 알게 하실지 기대하며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린 두 아이들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겠지만 제 평생 어떤 해 보다도 주님 안에서 나를 찾고 주님께 묻는 시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로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성도(10교구)

목회현장

웨슬리 채플에서의 목회 일기



2024년 1월 11일, 영국 땅에 처음 발을 딛고 나서 어느덧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날씨,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는 제니퍼(Revd. Jennifer H Smith, 웨슬리 채플 감리사) 목사님을 비롯한 교인들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

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John Wesley)의 마지막 삶과 그의 신앙적 유산, 열정이 스며든 곳에서 인턴으로 배우는 시간은 값진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광림교회와 담임목사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18세기 영국 브리스톨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 예배당인 '뉴룸(The New Room)'과 런던의 중심에 위치한 '웨슬리 채플'(Wesley's Chapel)은 중요한 목회 활동의 무대이자,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신앙의 부흥기와 더불어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곳입니다. 배낭을 메고, 한 걸음씩 둘러보게 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여정이 벽찬 감동과 도전으로 밀려왔습니다. 매일 이곳을 방문하는 누군가도 동일한 경

험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 역시도 마음 깊은 곳에 밀려드는 감동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스태프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목회 방향과 일정을 나누고, 서로의 역할을 정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최선의 목회적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이들의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아침 기도회(Morning Prayer) 인도, 성만찬 보좌, 성가대원 등 목회적 경험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만찬 집례와 설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값진 경험이자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가 다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웨슬리 채플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과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성도들의 봉사와 협력이 교회를 지탱하는 커다란 힘을 보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대표하는 웨슬리 채플은 영국 감리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교회 간의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턴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저의 신앙과 목회 철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먼 곳에서 기도해 주신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호렙산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응답해 주시길 이곳에서도 기도합니다.

강명남 목사(영국 웨슬리교회)

청년부

교육선교·해외선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통해 선교 준비

2024년 여름,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국내 교육선교와 해외단기선교를 진행한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찬양과 말씀, 기도로 충만한 은혜를 누린 청년들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전국 13개 지역, 해외 3개의 나라로 떠나게 된다. 총 300명의 청년들이 이번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갈 준비와 교육들을 받고 있다.

교육선교 강습회

2024년 국내교육선교 준비를 위한 교육선교 강습회가 6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선교 주제가 '기도할래요'(살전 5:16~18)인 만큼 이른 새벽 호렙산 기도회와 청년부 안수기도회를 통해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청년들은 오후부터 함께 모여 율동과 말씀, 유·초등부 공과를 배우며 선교 준비를 하고 있다. 강습회 일정이 끝나면 지역별 팀원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회, 말씀을 나누고 감리교 교육국에서 제작한 공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교를 준비한다.

해외선교 교육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2024년 하반기에 태국, 필리핀, 베트남 3개국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할 예정이다. 해외선교 교육은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6월 30일과 7월 7일,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2실에서 진행되었다. 5월부터 진행된 팀 모임을 통해 선교를 준비한 청년들은 선교에 임하기 전, 해외선교 교육을 통해 선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웠으며, 전도(Evangelism)란 무엇인가? 선교(Mission)란 무엇인가? 등 전도와 선교의

이론에 대해서 교육받았다. 두 번째로, 선교의 실제에 대해 공부하며 선교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단체로 활동하게 되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선교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등, 선교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번 2024년 여름 LFC 광림 청년부를 통해 국내에 있는 교회학교와 해외에 있는 선교지들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교회학교

2024 여름성경학교

〈광림광야학교〉빠른 길보단 바른 길로!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1년에 두 번, 여름성경학교와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는 7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광림교회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진행된다. 교회학교는 이번 2024 여름성경학교를 〈광림광야학교〉로 명명하고 '빠른 길보단 바른 길로!'(출 14:13)를 주제로 삼고 준비했다.

광림광야학교의 시작은 유년부와 초등부가 열었다. 지난 12일 교회에 모인 250여 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은 사회봉사관 앞에서 버스를 타고 국제광림비전랜드로 향했다. 성경학교에 참석한 유년부와 초등부 아이들은 비전랜드에서 부서별로 개회예배와 기도회, 미니올림픽, 게임, 공과, 물놀이 등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광림의 광야 학교를 경험했다.

7월 19일 ~ 21일까지 비전랜드에서 소년부, 7월 20일 ~ 21일까지 광림교회에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7월 26일 ~ 28일까지 비전랜드에서 중고등부, 7월 27일 ~ 28일까지 광림교회에서 영어예배부, 8월 3일 ~ 4일은 광림교회에서 아와나의 여름성경학교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 부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이번 광야학교에 참석한 아이들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흥해를 건너 가나안 입성까지의 과

정을 말씀과 공과, 여러 활동을 통해 배우고 체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된다.

임재철 목사(교회학교)는 "세상은 성공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승리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빠른 길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광야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걷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축제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박희윤 기자



호렘산 기도회 안전 나침반, 기드온선교회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된 은혜의 공동체 - 구본신 권사



광림교회의 거룩한 전통이자 이른 새벽을 여는 특별한 기도회, 올해로 36회를 맞는 '호렘산 기도회'가 40일의 여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어둠을 뚫고 기도의 빛줄기를 향해 모여드는 광림교회 권속들에게 나침반이자 이정표가 되어주는 기드온선교회는 호렘산 기

도회의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주일마다 교회에 드나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책임지고,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보행자 관리를 위해 힘쓰며, 주차장과 교회 주변의 환경미화와 교회 대내의 행사 지원 활동까지 광림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기드온선교회. 교회의 문지기 역할을 맡은 선교회원들을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안겨준다.

기드온선교회의 활약이 돋보이는 시기는 단연 호렘산 기도회 기간이다. 새벽 3시 10분부터 하나둘씩 모여드는 봉사자들이 정문 입구부터 건넌목 입구, 본당과 사회봉사관 지하까지 배치돼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도왔다.

일산, 인천 등 1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봉사하기 위해 새벽을 가르고 교회에 나와 주차 안내를 하는 회원들도 있다. 비가 쏟아지는 장마 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해 성도들을 맞이한다. 경기도 여주에서 출발해 호렘산 기도회 주차 안내를 하는 구본신 권사(9교구)도 그중 하나다.

기드온선교회에서 봉사하게 된 계기는? 같은 교구 권사님의 권유로 2017년에 기드온선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예배만 드리는 믿음이었다면, 봉사를 시작하면서 순종이 무엇인지, 봉사하며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알게 됐습니다. 기드온선교회는 연약한 저를 세워주고, 신앙생활의 전환점이자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준 고마운 곳입니다.

나에게 기드온선교회는?

봉사한 지 7~8년이 되었는데 힘든 건 별로 없고 보람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드온선교회를 이끄는 위원장 최제환 장로님 이하 임원들, 함께 봉사하는 분들의 에너지가 정말 좋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며, 끈끈한 동지애로 맺어진 동역자들이죠.

40명가량 되는 기드온선교회는 장기간 봉사한 분들이 특히 많은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저 역시 은혜를 받습니다.

앞으로의 소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상황과 체력이 받쳐

주는 순간까지 기드온선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제 삶도, 신앙생활도 많이 변화되었기에 받은 은혜를 끝까지 베풀고 싶다고 항상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기드온처럼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게 됐거든요.

교회의 젊은 성도들이 기드온선교회 봉사에 참여해 제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선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기드온선교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손길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 문의 : 기드온선교회 김영기 총무
(010-3529-9736)

한혜선 기자



세 자매가 함께 오른 호렘산 기도회

하나님 안에서 가족 사랑을 나눠요



어윤홍 성도 어윤주 권사 어윤옥 권사

매 주일 두 자매는 같은 차를 타고 교회에 오고, 한 자매는 따로 오지만 교회 본당에서는 가까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후에는 담임목사에게 인사를 하고, 그 주변에 있으면 자녀들이 찾아와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모두 70세가 넘는 세 자매, 어윤옥 권사(4교구), 어윤주 권사(27교구), 어윤홍 성도(27교구)를 만나 보았다.

언제부터 광림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요?

어윤옥: 78년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비슷한 시기 신사동에 들어선 광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신자이던 어머니도 저희 따라 교회에 출석하였으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모두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을 비롯한 예전 성도들과하는 교류가 많았는데 제 나이가 78세가 되다 보니

이제 교회활동은 주일예배와 트리니티, 호렘산 기도회에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호렘산은 8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윤주: 강남에 살면서 광림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며, 사전 약속은 하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 언니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렘산 기도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윤홍: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 결혼 후 시댁의 권유로 성당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언니의 권유로 다시 광림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어윤옥: 현재 딸은 광림교회에 열심히 봉

사하고 있는데, 아들은 멀리 있고 또 손주는 미국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곤 했는데, 가족 사랑을 중시하는 남편 박장원 권사는 이러한 모임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여동생 식구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식사도 하고 자매의 정을 나누는 등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론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1~3)

이득섭 기자

